

勤政殿進儀儀圖素描

清平寺極樂殿丹青

成佛寺極樂殿及應眞殿丹青

成川東明館丹青

宋山里古墳壁畫模寫

作品

絹紙山水圖一幅(遣族所藏)

半島호밀호를進儀儀圖一幅(半島호밀)

文樣集草稿(遣族所藏)

圖面(自作品及所藏品)

(編者註) 所藏圖面中他處에도 있는 것은 省略하였음 地方이나 年代順

으로 考慮하지 않았음

晉州蘆石樓·慈忍堂(素描)·無爲寺極樂殿·修德寺大雄殿·浮石寺祖師堂梵鐘樓·彰義門·大西門·佛國寺安養門·松林寺埵塔相輪(素描)·傳燈寺藥師殿·成川東明館·江陵客舍·慶州東京館·서울東廟·抱川文廟大成殿·感恩寺址及塔實測圖·水原八遠門華西門·聖住寺五層石塔·竹西樓·水原鍊武臺訪花隨柳亭·長谷寺上下大雄殿·坡香亭·華嚴寺覺皇殿·安國寺大雄殿·社稷壇表門·觀龍寺藥師殿大雄殿·松林寺大雄殿·尙德祠·浮石寺東方寺址及塔·開心寺尋劍堂·鳳停寺極樂殿·大雄殿·서울南大門·景福宮交泰殿·敬天寺址十三層石塔·鏡浦臺·密陽客舍·昌德宮秘苑演慶堂·春川文廟·雙峰寺大雄殿·銀海寺居祖庵·石窟庵前室·淨水寺法堂·江華鐘閣·龍門寺大寂光殿·閉目寺圓通殿·鎮南館·昌德宮及景福宮諸殿·南漢山城諸建物·開城南大門·法興寺法堂·喜方寺·龍門寺大雄殿·月精寺法堂(新築)·上院寺鐘閣(新築)·嶺南樓·清平寺廻轉門·道岬寺解脫門·來蘇寺大雄殿·全州慶基殿

補修工事關係書類

修德寺大雄殿修理 (日帝總督府書類)

成佛寺極樂殿·應眞殿修理 ()

安國寺大雄殿修理 ()

清平寺極樂殿修理 ()

高敞禪雲寺修理申請書 ()

華嚴寺·海印寺藏經閣防火用貯水池·松廣寺國師殿·高陽郡七陵·光化門移建工

專等

(十月 申榮勳 調査)

麻谷寺에 對하여

尹 張 燮

머릿말

故林泉先生이 生前에 韓國考古美術 및 古建築界에 이바지한 貢獻은 매우 크고 뜻있는 것이 었다고 生覺된다. 特히 韓國建築의 丹青에 있어서 그분의 造詣는 唯獨한 것으로 그의 丹青에 關한 깊은 理解와 知識이 適切한 後繼의 方途를 찾지 못한 채 幽明을 달리하게 된 것은 매우 哀惜하게 生覺한다. 筆者가 林泉先生을 처음 見은 때의 小談하고 金 소한 藝術家의 인 그분의 첫 印象은 지금도 腦裏에 영 永하게 아 로 사 겨 져 있다. 林泉先生을 追慕하는 마음으로 公州麻谷寺에 關한 小考를 실어 보기로 한다.

一、配置

高麗時代樣式의 特性을 比較的 많이 지니고 있는 麻谷寺는 溪流를 끼고 山의 地形에 잘 어울리도록 段地를 形成하여 配置되어 있다. 入口에서 支流에 놓인 다리를 건너면 左側에 八作집의 解脫門과 벉집의 天王門이 있고 그 뒤편에 靈山殿을 中心으로 한 僧房과 冥府殿等이 있어 女僧들이 修道하고 있었고 右側으로 발을 옮겨 溪流에 놓인 正心橋를 俗世의 風塵을 씻는 氣分으로 건너서 길을 따라가면 南向한 大光寶殿 앞 中庭에 이르게 된다. 그 左右에는 僧房과 應眞殿이 있으며 大光寶殿 앞에는 風磨銅을 頂部에 놓은 特異한 모양의 高麗時代 五層塔이 하나 우뚝서 있고 寶殿基壇에 오르는 層階左右에는 高麗時代로 推定되는 幢竿支柱가 서 있다. 大光寶殿의 建物は 近年에 重創된듯 하며 圓홀리 圓柱、 쇠서、 연봉、 봉머리 雲工이 있고 外三出目、 內四出目으로 되어 있으며 簷 遮와 小累、 낮은 柱頭 막자른 昌枋과 平枋 棟목 심하게 빚뚝은 婦椽뿌리

隅柱는 굵고 빗머리친 春舌蛇羅(사래)等 모두 李朝末期的樣式을 따랐다
집은 八作집이다. 大光寶殿 뒤 한層 높은 段地위에 서 있는 大雄寶殿
은 重層八作집으로 湖南地方에 많이 있는 重層建物の 한例이라 하겠다.
部材는 二、三次의 大修理가 있었듯 많이 原來의 모습을 잃은듯 하나 內
部의 高柱가 層마루 없이 곧게 오른 雄壯한 모습은 옛모습을 잘 지니고
있는 것으로 生覺되었다. 石材로 된 部分은 高麗時代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이 적지 않으나 木造部分은 大部分 李朝中葉以後에 손질된듯 하게
보였다. 特히 注目을 끄는것은 壬辰亂以前 或은 李朝初期의 建築物로推
測되는 靈山殿은 가장 오랜 옛모습을 比較的 保存하고 있어 特異하
였다.

二、靈山殿

東向을 하고 서 있는 이 建築物은 正面五間 側面三間으로 그 平面의 比
率이 오랜된 建事物들과 類似하고 지붕은 鬚집이다. 世祖大王親筆이라 傳
하는 懸板에는 靈山殿이라 橫書되어 있었으며 高麗 明宗時 普照國師의
創建이라 傳한다. 中央의 막돌로된 層階를 오르면 同一間隔의 五間이 모
두 三分間門으로 中央御間은 빛살門扉로 하여 夾間과 邊間의 格子살문
과 다르게 하였다. 기둥에는 배흘림(Belform)이 매우 아름답고 確然하며
기둥위에 包作은 前面과 後面이 전혀 相異한 樣式의 五包作을 形成하고
있으며 內部에는 보아지草 工을한 柱心包形式의 집이다. 지붕構造는 外
目、柱心、中、宗의 五椽집으로 前面에는 婦椽이 있고 後面에는 婦椽없
이 역시 前後가 相異하다. 側面의 처마는 防風板없이 朴工을 달아 자못
깊숙하고 은근한 옛멋을 보인다. 柱礎는 막돌柱礎이나 定平을 意圖하였
으며 平柱高는 二九七 cm 三〇〇 cm 三〇五 cm 로서 約 八 cm 의 隅柱寸음을
갖고 있다. 內部는 여러번 改彩한것 같으나 丹青文樣이 古色을 지니어
름답다. 大椽받지에 평받자를 달고 中央部分은 宗椽받지에 솟쳐올려서
평받자를 달았다. 지붕올때는 急하며 比較的 威嚴있는 外觀을 形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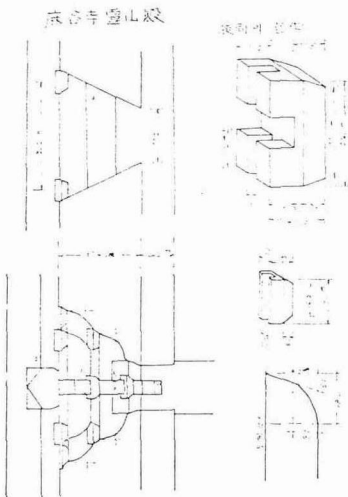
特히 배흘림의 完然한 기둥과 栱包의 特異한 形式은 類例가 稀貴한 것
으로 前面은 齊工 翼工 雲工의 글부리를 코끼리코模樣으로 말아감고 내

민 二出目 五包집인데 後面은 浮石寺祖師堂의 包作을 聯想하게 하는 單
純한 形態이며 二出目的 五包作이다. 그 規模와 手法、內部栱包의 같은
보아지 草工으로 만든 點等으로 이루어 보아 前後面의 栱包는 同時에 計
劃施工된 것으로 生覺되며 매우 特徵있는 建物이라 하겠다. 前後面의 包
作을 좀더 仔細히 考察한다면 前面의 包作은 按草工簷遮가 柱頭를 감싸
고 一出目위의 小簷을 바쳤다. 簷遮의 머리는 竝두머리를한 壁付簷遮이
다. 柱頭와 小累는 아랫몸이 곧은 面으로 되어있고 小欄대 없는 巡閣板
을 돌렸고 內目없는 內包는 오랜 옛적의 柱心包의 特徵을 따랐다고 하
겠다.

前面의 昌枋은 圓枋인데 反하여 後面의 枋은 枋으로 환點도 다르며
按草工簷遮의 곧은 곧게 끊어 다른것과 모양을 달리 하고 柱頭는 比較
的 낮고 小累에 있어서도 수장幅에 맞추지 않았으며(수장幅은 一〇・五 cm
인데 小累의 운두는 九・三 cm 인) 그리고 그아랫몸은 곧은 面이다. 柱簷
遮는 壁付簷遮이고 모두 빗머리 翹頭形으로 되어있어 一般包집의 樣式
과 크게 다르지 않다. 初齊工은 역시 빗머리 翹頭形으로 按草工簷遮과 다
르고 그우에 二分頭의 限大가 없혀 外包의 오래된 樣式을 나타내고 보
머리는 막돌어 양편으로 빗내린 모습이 單純하며 全體的인 包作의 모습
과 잘하여 어울린것이였다. 花盤은 柱心間一個式 中央에 있고 單純한 모
양으로 위양말에 小累
가 물려 있다. 十字小
累없이 어떤 樣式을
입격히 따른 意圖가
있어 韓國建築史研究
에 貴重한 建築物이라
하겠다.

三、五層石塔

大光寶殿 正面中央
에 자리잡고 있는 이塔
은 一名 多寶塔이라고



도 하며 二層基壇 위에 五層의 塔身을 올려 놓고 相輪部에는 類例없는 風磨銅이라는 金銅製 頂部를 올린 것이 이 塔의 特色이라 할 수 있다. 먼저 基壇의 構成形式을 보면 二層基壇을 갖추었으나 上下基壇幅이 거의 同一하며 特히 基壇幅에 比하여 높이가 훨씬 높은 關係로 一見하여 單層基壇으로 誤認하기 쉽다. 上層基壇 隅柱는 在來의 完全한 角形柱와는 달리 隅柱와 같이 一種의 몰딩(moulding)을 만들어 隅柱를 나타냈다. 上下 甲石은 두꺼운 長板石으로 構成하고 몰딩이나 附加의 裝飾이 없다. 上層基壇 甲石 上部에는 上層塔身을 받기 위한 두꺼운 二枚의 長台石을 끼워 놓고 있다. 各層의 塔身의 屋蓋石과 屋身은 各各 單石造로 되고 初層 屋身南面에는 門扉形式을 模刻하고 第二層 屋身도 四面에는 佛像을 刻하였다. 그리고 第三層 屋身石 四隅柱는 다시 內部에 副柱를 刻하였다. 特히 第二層 塔身과 最上部 風磨銅을 받 는 基壇部는 그 石材의 材質과 形態가 判異하게 다른 것을 보아 많은 時代가 다른 것이 아닌가 或은 다른 것으로 補完한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各層의 屋蓋石 받침은 매우 纖弱하게 二段를 이루었으며 처마의 추너마루 曲率이 매우 심하고 落水面의 勾配가 추박하다. 처마 端面은 거의 直角에 가깝고 落水面上에는 추너마루의 形態가 조금 나타나 있었다.

相輪部는 新羅나 百濟塔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口傳으로는 唐則天 武后가 印度에서 가져다 보낸 것이라고 하나 全히 믿을바 못되며 風磨銅의 形式이 喇嘛式 寶塔과 類似한 點에서 元의 文化的 影響을 많이 받았든 高麗中葉以後의 外來文化的 交涉狀態를 보여 주는 좋은 例라 하겠다. 特히 이 風磨銅의 平面形式이 敎天寺址塔과 類似한 點에서 注目할 만하다. 全體의 幅에 比하여 高가 細長하고 各層의 遞減率이 적은 點 特히 처마 曲線의 심한 曲率 在來의 典型的인 細部手法의 退化된 點에서 高麗中期以後를 넘어서 오히려 高麗末期的 傾向이 濃厚한 塔이라 하겠다. 끝으로 現地調査에 同行 協力하여 주신 崔容完氏와 李璟會氏의 勞苦에 對하여 謝意를 表하고자 한다.

李朝住宅의 窓과 門에 나타난 空間性

朱 南 哲

建築物에 있어서 窓과 門의 意義는 外部空間과 內部空間과의 媒介體로서의 역할이 一次的이다. 門을 通하여 外部空間(自然空間)에서 內部空間(人工空間)으로 出入하게 되며 또한 하나의 內部空間과 다른 內部空間을 연결시켜준다. 門이 通路로서의 기능에 그의 의의가 있음에 비하여 窓은 建築計劃原論的인 意義가 더 크다 窓을 通하여 外部空間으로부터 內部空間에 빛(光)공기를 도입한다. 그러나 窓과 門은 一次的인 의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을 視覺的으로 연결시켜주는 第二次的 的의를 갖게 된다.

人工空間은 바닥, 벽, 지붕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閉鎖空間을 이루게 되나 窓과 門의 存在로서 어느 정도의 開放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開放성은 二〇年代의 近代建築에서 柱, 梁, 床이 荷重을 받게 됨으로서 組積式에서의 耐力壁의 表現을 意識적으로 추방하여 壁의 閉鎖性을 追放하게 되었다(註) 또한 內部空間의 構成材料를 外部까지 뻗어나가게 하며 外部空間의 바닥면과 內部空間의 바닥면을 동일 면상에 높음으로써 外部空間과 內部空間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近代 유리의 多量生産으로서 全面유리窓(Japan de verre)이 出現됨으로서 內部空間(人工空間)에 外部空間(自然空間)을 도입하게 되었고 또한 內部空間에서 外部空間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韓국의 많은 洋式住宅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도리켜볼 때 우리 固有의 住宅樣式인 李朝住宅은 內部空間과 外部空間의 융합문제에 있어서 한층 적극적이었으며 선구적 역할을 하였었다. 李朝住宅의 窓과 門에는 유리를 使用하는 대신 창호지를 사용하였다. 창호지는 어느 정도의 空氣와 빛을 투과시키나 視覺的으로는 완전히 차